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- **담 당** : 산업경제연구부 조원지 부연구위원
(063-280-7194)

보도시점: 2021년 5월 13일(목)부터

전북 농촌, 치유와 즐거움을 함께

전북연구원, 전라북도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모델 방안 제안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이슈브리핑 ‘전라북도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모델 구축 방안’(통권 245호)을 발간하고, 농촌마을의 체험활동·농촌관광과 치유농업이 결합된 ‘마을형 농촌치유관광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.
-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, 건강 등에 위협적으로 인지되는 공간들이 증가하면서 심리적 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·사회적 공간 축소로 누적되고 있는 일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.
- 최근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해 ‘치유’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로와 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.
-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6차산업, 관광, 복지 등 농업의 다기능성에

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건강 도모를 위한 농업활동 및 산업인 '치유농업'이 관심을 받고 있다.

- 최근 도시민의 자연친화적 여행 수요는 농촌공간에 주목하며 농촌은 농업·농촌 자원을 통해 코로나에 지친 도시민의 건강 회복과 힐링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화되고 있다.
- 농촌체험관광의 '즐거움'에서 '즐거움과 치유'로 전환은 코로나19로 지친 도시민의 여행 욕구를 충족하며, 농촌관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.
-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박사(산업경제연구부)는 “유럽의 경우, 농업·농촌 자원은 관광자원이자 치유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.”며, “특히, 일상생활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은 이들은 치유를 위해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.” 고 언급하였다.
- “코로나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스트레스를 농업활동으로 경감시킬 기회가 될 것이다. 특히, 전라북도는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·농촌 자원이 풍부하다. 농촌 마을이 가지고 있는 즐길거리, 먹거리, 볼거리 등과 함께 치유가 결합된다면 최근 도시민의 여행 욕구와 부합될 것이며, 농촌마을관광이 농촌치유관광으로 주목받을 것이다”고 강조하였다.
- 전북의 농촌 마을이 도시민의 치유의 공간이자 즐거움의 공간으로 재구성된 농촌치유관광에 도시민의 관심이 증가될 것이며, 마을 중심 농촌치유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북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모델을 제시하였다.